

# 2021년 2/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1. 3

창원상공회의소

##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1. 3. 8 ~ 26(휴일제외 15일 간)
- 분석대상 : 178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28	150	39	139
비중	15.7	84.3	21.9	78.1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35	39	47	32	11	14
비중	19.7	21.9	26.4	18.0	6.2	7.9

### 3.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II

## 요약

- 2021년 2분기 전망BSI '105.1', 1분기 실적BSI '93.8'
  - 매출액(123.0) 긍정적 전망에도 자금조달(89.7)은 부정적
  - 기계, 방산, 가전,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전기·전자업종이 회복세 이끌 것
  - 올해 예상되는 국외 위험요인, '보호무역주의'와 '신흥국 경기침체'  
국내 위험요인, '코로나 재유행'과 '기업부담법안 입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및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가파른 경기악화 추세를 보였던 창원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2021년 2분기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창원지역 제조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105.1'로 조사되어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상회했음. 각국의 양적완화와 코로나19 백신보급 등으로 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있고, 비즈니스 교류와 물류활동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수출물량이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매출액(123.0), 영업이익(102.4), 설비투자(101.6) 등 주요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며 1분기 대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자금조달(89.7) 부문에는 여전히 부정적 전망을 내어놓고 있음. 원자재가격 급등과 고정비 누적 등으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에도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이 올해 신용등급 하락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임.
- 완성품 기준으로 광학정밀기계(150.0), 공작기계(148.4), 건설중장비(145.0), 자동차(112.5), 방위산업(110.5), 가전제품(110.3) 관련 기업들이 2분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원자재성제품(90.9), 철도·항공(87.5), 발전설비(73.1), 선박·해양플랜트(50.0), 기타공구(30.8) 등은 지난 분기에 이어 기준치를 밑돌았음.

- 지난해 크게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일정부분 회복되었으나,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임. 대체로 전 산업의 전장화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의 회복이 두드러졌고, 해외 산업활동과 소비회복에 따라 지난해 지체되어 있던 가전제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자동차 등의 관련 업종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예상되는 국외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주의 확대’(23.0%), ‘신흥국 경기 침체’(22.1%)를 가장 많이 답했고, 이 중 수출위주 기업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환율변동성’(29.3%)을 가장 많이 꼽았음.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재유행’(46.5%), ‘기업부담법안 입법’(20.4%)이 가장 많았음. 모든 기업군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가장 우려하는 가운데, 수출위주 기업의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24.6%)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응답업체의 65.2%가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음. 감소로 응답한 업체의 65.5%는 내년 이후는 되어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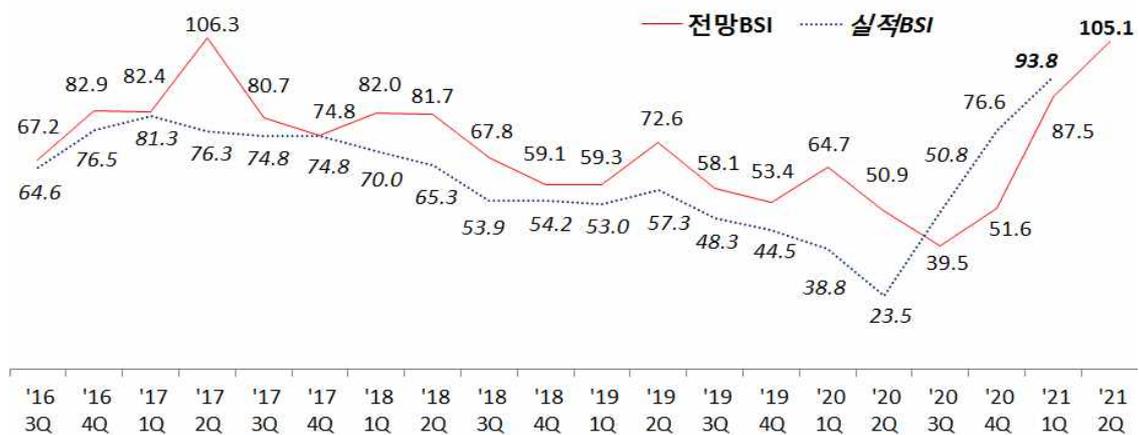
### Ⅲ

##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 1. 창원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1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5.1'로 조사되었음. 전망BSI가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임.
-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기업정책의 기조변화로 기준치를 밑돌던 전망BSI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수산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음. 각국의 양적완화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있고, 비즈니스 교류와 물류활동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수출물량들이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이를 완전한 경기회복으로 보는 것보다 지난해 지체되어 있던 국내외 산업활동이 재개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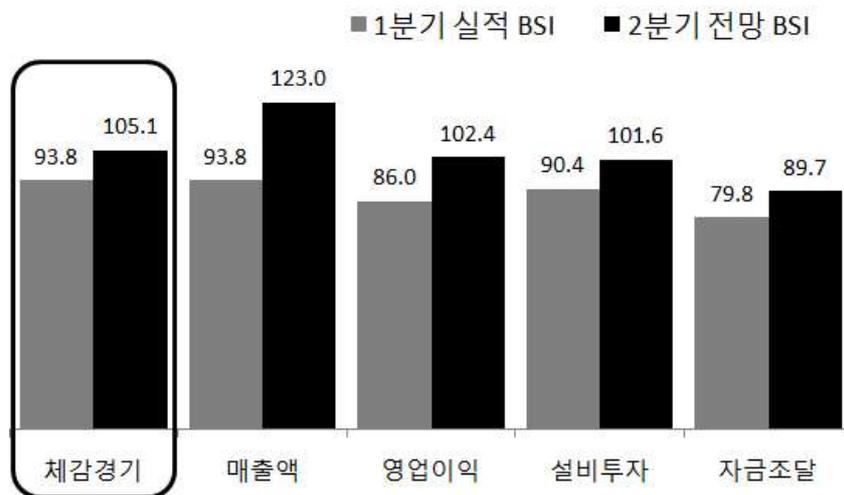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021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도 기준치에 근접한 '93.8'로 조사되었음. 여전히 기준치를 넘지 않아 실적회복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지난분기 조사되었던 1분기 전망BSI(87.5)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전망했던 수준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됨.

## 2. 항목별, 기업형태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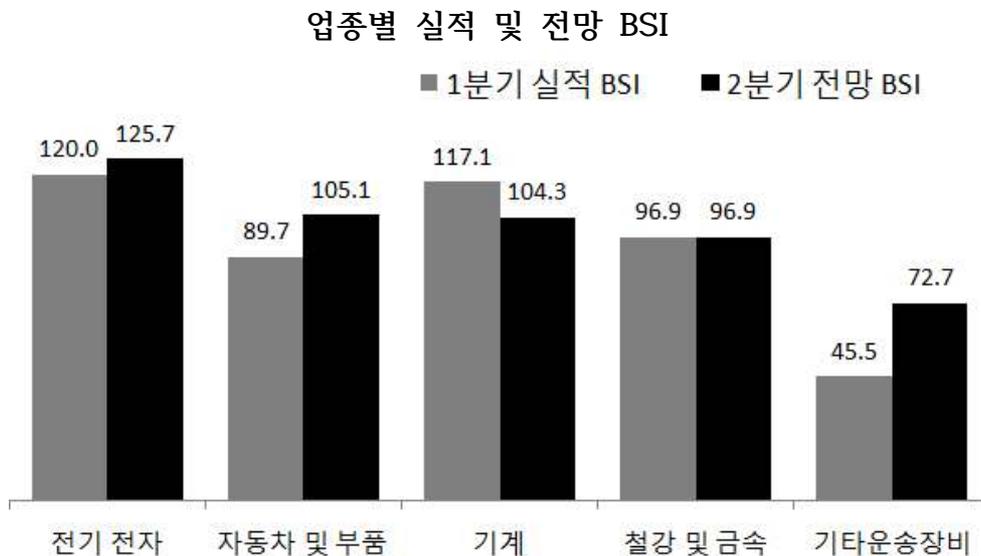
- 항목별 2분기 전망BSI가 기준치를 상회한 가운데, 매출액 전망BSI는 '123.0'으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음. 이밖에 영업이익(102.4), 설비투자(101.6) 등 자금조달(89.7)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했음.
- 매출액과 설비투자 증가가 전망되지만,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되었던 지난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크게 저조했음. 이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신용등급의 하방압력이 큰 상황임. 더불어 코로나19 이전 투자되었던 설비를 통해 회수되어야 할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원자재 구입과 설비투자 등의 자금수요 증가에도 이를 지원할 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풀이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3. 업종 및 기업형태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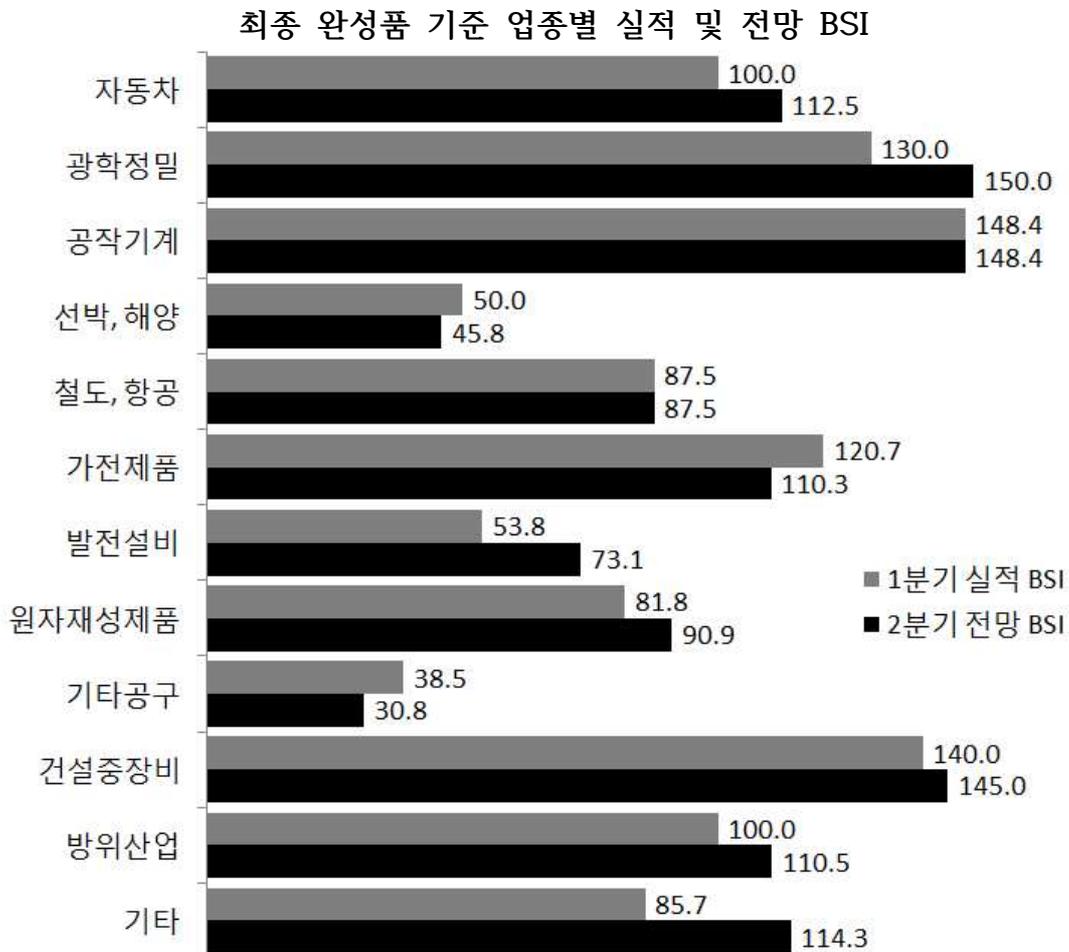
- 2분기 전망BSI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음. 전기·전자(125.7)와 자동차 및 부품(105.1), 기계(104.3) 업종의 경우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철강·금속(96.9)과 기타운송장비(72.7) 업종은 기준치를 밑돌았음.
- 실적BSI의 경우에는 전기·전자(120.0), 기계(117.1) 업종에서 기준치를 상회했고, 철강 및 금속(96.9), 자동차 및 부품(89.7), 기타 운송장비(45.5) 업종은 기준치를 하회했음.



-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4분기부터 일정부분 회복되었으나,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여왔음. 대체로 전 산업의 전장화와 반도체 수요 급증 등 따라 전기·전자 업종의 회복이 두드러졌고, 해외 산업활동과 소비회복에 따라 지난해 지체되어 있던 가전제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자동차 등의 관련 업종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종 완성품 기준으로 업종을 세분화하면, 공작기계(148.4)와 건설중장비(145.0)가 2021년 2분기를 1분기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더불어 광학정밀(150.0), 자동차(112.5), 방위산업(110.5), 가전제품(110.3) 등도 기준치를 상회했음. 이들 완성품에 활용되는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반면, 원자재성제품(90.9), 철도·항공(87.5), 발전설비(73.1), 선박·해양플랜트(50.0), 기타공구(30.8) 등은 지난 분기에 이어 기준치를 밑돌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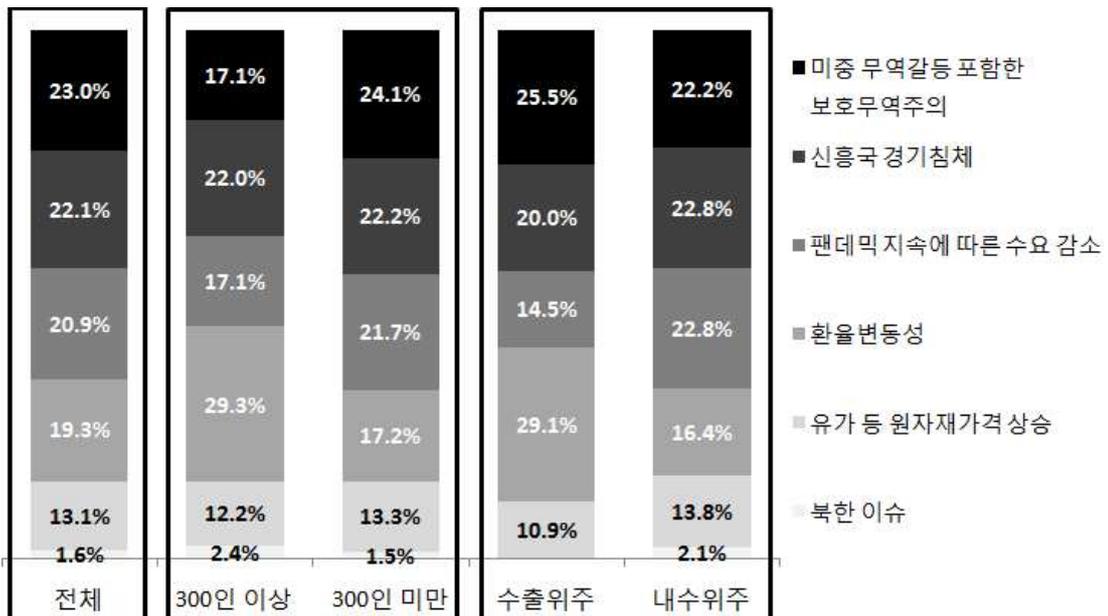


## 4.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위험요인

### 1) 올해 예상되는 국외 위험요인

- 올해 예상되는 국외 위험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3.0%가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신흥국 경기침체’ 22.1%, ‘팬데믹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 20.9%, ‘환율변동성’ 19.3%,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13.1%, ‘북한 이슈’ 1.6% 순으로 답했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신흥국 경기침체, 글로벌 수요감소 등 주요 위험요인 간 상관관계가 깊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응답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기업규모별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성’(29.3%) ‘신흥국 경기침체’(22.0%)를,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확대’(24.1%), ‘신흥국 경기침체’(22.2%)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올해 예상되는 국외 위험요인(n=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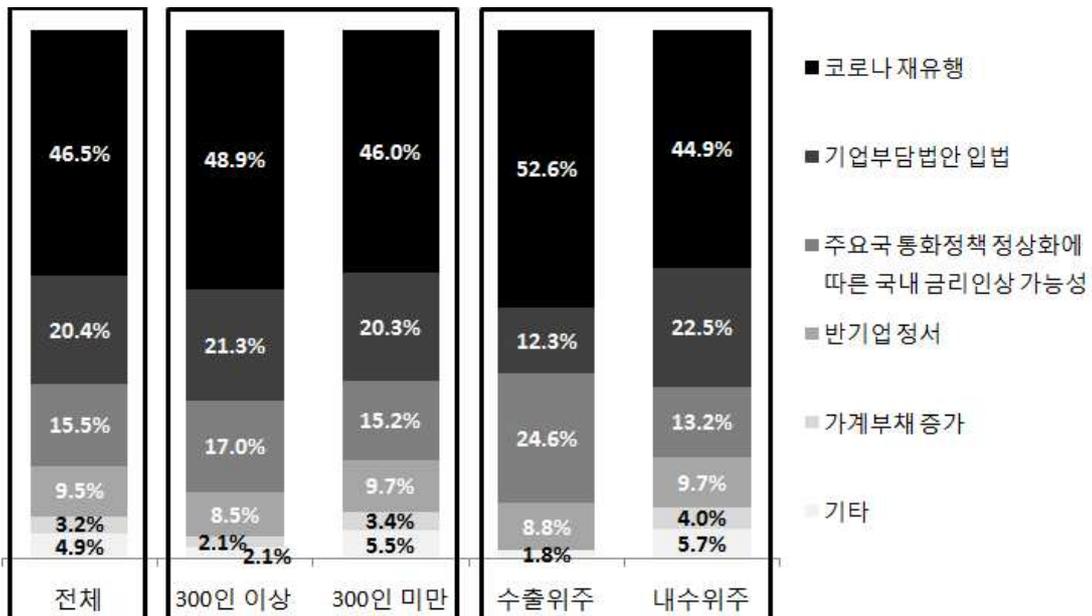
※ 수출위주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의미

- 수출위주 기업의 경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9.1%),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25.5%)를, 내수기업의 경우 ‘팬데믹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22.8%)와 ‘환율변동성’(22.8%)을 위험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음.

## 2) 올해 예상되는 국내 위험요인

- 올해 예상되는 국내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재유행’으로 응답한 비중이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부담법안 입법’ 20.4%,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금리인상 가능성’ 15.5%, ‘반기업 정서’ 9.5%, ‘가계부채 증가’ 3.2% 순으로 답했음.
- 기업규모별, 매출형태별 등 모든 기업군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국내 위험요인으로 응답했음. 다음으로 ‘기업부담법안 입법’을 꼽고 있으나, 수출위주 기업의 경우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올해 예상되는 국내 위험요인(n=178)



## 5. 2020년 경영실적과 회복시기 전망

-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영업이익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5.2%가 '줄었다'고 답했고, '비슷한 수준이다' 19.1%, '늘었다' 15.7% 순으로 답했음.
-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업체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년 이후'로 답한 비율이 65.5%, '올해 안' 26.7%, '올해 상반기 중' 7.8%로 답했음.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영업이익) 변화(n=178)

